

**2017년도 포교사단  
충북지역단 지도감사 보고서**

**2017. 4. 21**

**조사자 : 감사 이용우, 수석부단장 한성웅**

# 충북지역단 지도감사 결과 보고

## I. 조사개요

- 일 시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 장 소 : 포교사단 충북지역단 사무실
- 조 사 자 : 포교사단 이용우 감사, 한성웅 수석부단장
- 조사내용 : 2016년 상·하반기 충남지역단 감사결과 및 조치상태 조사
- 조사근거 : 정관시행에 관한 규정 제78조(사무의 인수인계)

## II. 조사내용

### ■ 문서관리 분야

#### 1. 문서접수대장과 문서발송대장

- 가. 문서접수와 발송처리는 문서접수대장과 문서발송대장이 적법하게 정리되어 있었음.
- 나. 접수문서에 대한 운영회의결과를 팀장을 통한 팀원들에게 홍보가 미흡함.

#### 2. 문서보관 및 보존

문서 보관철이 노끈으로 묶어져 있어서 시정을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현재는 파일 처리를 시작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됨.

### ■ 인사관리 분야

#### 1. 임원 인사

##### 가. 수석부단장 미임명

현재 수석부단장 공석 상태로, 임의적으로 특정인을 수석부단장이라고 단장이 말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단장이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특정인을 수석부단장으로 서류상으로 한 것이 있다는 지역단 감사의 지적이 있었으나 서류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음.

##### 나. 북부총괄팀장 공석

현재 북부총괄팀장이 공석으로 총괄팀 산하 3개 팀장 및 팀원들과 단장과의 소통부족과 정관과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서로 오해가

쌓여 갈등이 고조된 것으로 사료되며, 총괄팀장의 자격요건과 단장 임명권 등을 잘 숙지하고 임명하도록 지도함.

## 2. 21기 신규 포교사 팀 배치 지연

신규포교사는 일반적으로 팔재계를 마치는 시점에서 팀 배치가 완료되는데, 21기 신규포교사 팀 배치를 2016년 11월 운영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신규포교사의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사료됨

## 3. 사무국장의 장기공백

전임사무국장이 2016년 5월에 생계문제 때문에 사표를 내고, 2017년 2월 18일 신임 사무국장이 임명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사무국장의 공백으로 인하여 지역단의 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상반기 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지원자가 없어서 공백 기간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단장의 답변이었음

## 4. 포교활동팀 변경문제

8개 팀을 5개 팀으로 축소 변경하면서, 정관 및 규정 미숙지와 운영회의 기록누락을 상반기 감사에서 지적하였으나, 시정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사무국장 공석으로 기록이 누락되어 시정하지 못했다는 단장의 답변이었음.

## 5. 충북지역단장상 수여문제

가. 2016년 분야별 연수시 충북지역단장상 수여문제는 2016년 11월 운영위원회 사후승인을 했다고 감사의 지적이 있었으나, 2016년 9월 운영회의록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나. 상벌문제 중 특히 포상문제는 항목별 점수가 객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운영회의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 분란이 없어야하고, 단장이 편파적으로 포상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지도함.

## ■ 조직관리 분야

### 1. 카페관리규정 미운영

카페 운영자로 사임한 곽택근 사무국장이 2017년 2월 7일 감사 시까지 등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음을 인지시키고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카페규정은 표준 매뉴얼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로 카페규정을 만들도록 지도함.

## 2. 운영위원회 성원문제

2016년 10월 운영위원회 23명 운영위원 중 1/3에도 미달한 7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 하였으며, 2016년 12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도 23명 운영위원 중 참석인원이 10명으로 1/2에 미달된 상태로 위임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확인됨. 특히 2016년 10월 운영위원회에서 출석 인원이 1/3이어서,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의 문제성을 지적하였으나, 위임으로 1/2이상을 성원을 구성한 것을 확인하고 출석인원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지도함.

## 3. 갱신대상자의 우편물 지연문제와 홍보 부족 문제

갱신대상자의 우편물 지연문제와 홍보 부족 문제로 갱신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대책으로, 카페의 공지와 지역단에서 갱신기간 내에 팀장이 팀원들에게 독촉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매년 전국 지역단의 평균 30%에 달하는 갱신대상자가 갱신을 하지 않는 것을 인지시키고, 신규포교사 양성 못지않게 갱신자의 탈락의 감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도함.

### ■ 회계관리 분야

#### 1. 하반기 감사자료 지출영수증 21건 영수증 없음의 문제

가. 영수증이 없는데도 단장이 결재를 한 것을 감사가 지적한 것을 사후에 팩스로 영수증을 받아 복사하여 첨부하였음을 확인.

나. 3만원을 넘어서 수 십 만원까지의 지급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을 다수 발견함. 앞으로 지출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을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단장을 답변이 있었음.

#### 2. 강사로 규정이상 과다 지급문제

분야별 연수 시 규정상 20만원(시간당 10만원씩 해서 2시간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30만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지적 후에 단장이 10만원을 지급함. 앞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은 사전에 추가 예산을 세워 총당하겠다고 하였음.

#### 3. 예산 초과집행 문제

중앙공원 무료급식 봉사 시 예산은 156만원 인데, 집행은 161만원을 지급하였고, 포교 전진대회도 예산이 390만원임에도 482만원이 집행된 것에 대해, 앞으로 미리 추경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집행하겠다는 단장의 답변이 있었음.

### III. 조사결과

1. 충북지역단의 갈등문제는 전임. 후임 간과, 현 임원과 운영위원간의 소통과 이해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사료되며.
2. 현 단장이 지역단의 전반적인 이해부족과, 정관 등의 숙지부족과 포상문제와 총괄팀장의 임명문제, 수석부단장의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등의 말실수와 연간 예산 수립 시에 운영위원회 등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는데 미숙하였고,
3. 될 수 있으면 많은 운영위원이 참석해 충분히 성원이 된 상태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해야만 결정사항이 잘 집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4. 임원들과 운영위원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실행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단장의 1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올해는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5. 그리고 오랜 시간 공석이던 사무국장 임명으로 전반적인 행정공백을 잘 메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충북지역단의 갈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 IV. 시정조치요구

1. 공석상태인 임원인사는 조속한 시일 내 정관과 규정에 부합하고 충북 지역단 화합을 이루도록 단장 책임하에 조치
2. 운영위원회는 충분히 성원이 된 상태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운영위원들의 참석 독려
3.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운영절차 확립
4. 회계와 관련하여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고, 2016년도 지역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 보고
5. 카페 운영규칙 제정 및 운영
6. 지역단 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관과 규정의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7. 전, 현직 임원진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의 지역단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이행. 끝.

2017. 4. 21

조사자 : 포교사단 감사 이용우(인)

수석부단장 한성웅(인)